

KWANGYA FOREST MAP



광야숲 1기, 2023년 봄 조성

엄나무 숲 아래

거대한 엄나무 아래에 어린 때죽나무와 이런 저런 풀꽃 나무들이 자랍니다. 빛이 많은, 숲의 입구로 해가 낮은 이른 오전이나 오후 네다섯시 즈음 방문하면 가장 아름답습니다. 긴 의자에 앉아 호수를 바라보거나 누워서 하늘을 봐도 좋습니다.



A1 엄나무 숲

비가 오는 날이면 더 짙은 검은빛 줄기를 뿜내는 엄나무는 광야숲의 주인공입니다. 20년 넘게 산 이 나무들은 더위를 피할 그늘을 내어주고 곤충이 좋아하는 꿀과 꽃가루를 만듭니다.



A2 덩굴 속 비밀통로

겉이 많은 새에게 덩굴은 몸을 숨길만한 소중한 장소입니다. 올새는 봄가을에 한반도를 찾는 나그네새로 2023년 5월, 이 곳에서 올새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오늘은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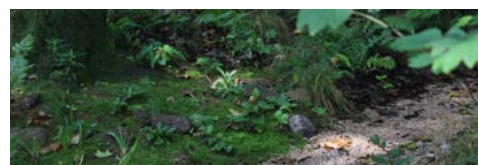
A3 숲을 가꾸는 새

곤줄박이는 때죽나무 열매를 매우 좋아합니다. 열매를 겨울 동안 먹기 위해 숲 이곳 저곳에 숨겨두고 잊어버리곤 해 이 중 몇몇이 나무로 자라 다시 숲의 일부가 됩니다.



A4 숨쉬는 불빛

해가 진 뒤, 돌 틈과 나무 틈에서 숨쉬듯 천천히 점멸하는 불빛이 있습니다. 틈 사이에 누군가 살고 있는 듯합니다. 가벼운 소란에도 놀라 달아날지도 몰라요!



A5 이끼의 비밀

촉촉한 곳을 좋아하는 이끼는 그들이 오래 머무는 큰 나무의 북쪽에서 종종 발견되어 숲속의 나침반이 됩니다. 엄나무 줄기의 북쪽에 어떤 이끼들이 자라고 있을까요?

광야숲 2기, 2024년 봄 조성

상수리나무 숲 아래

덤불 너머 상수리나무 아래에 작은 공터가 보입니다. 공터의 의자에 앉아 잠시 주변을 둘러보세요. 스러져가는 그루터기 주변으로 풀꽃이 자라는 것이 보이고 이끼가 모여 사는 물길도 보입니다. 나뭇잎 소리, 새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주세요.



B1 부드러운 흙 아래

바닥에 쌓인 낙엽 밑, 부드러운 흙 사이로 수많은 생명이 살아갑니다. 사람이 밟으면 쉽게 으스러지는 연약한 세계이지요. 개미부터 꽃무지, 사슴벌레, 매미 애벌레, 지렁이들이 분주히 살아갑니다.



B2 어린 나무

숲의 곳곳에는 씨앗에서 자라나 보살핌을 받다 이곳에 온 어린나무들이 있습니다. 큰 나무가 되길 꿈꾸는 어린 생강나무, 박쥐나무, 철쭉, 함박꽃나무를 찾아보세요.



B3 분해자의 집

숲에는 생산자, 소비자 외에 죽은 나무를 양분 삼아 자라는 분해자가 있습니다. 버섯과 목식성 곤충도 숲에 꼭 필요한 존재이지요. 차곡 차곡 쌓인 통나무 사이로 어떤 생명이 보이나요?



B4 애벌레의 밥상

나비 애벌레는 입맛이 까다로워 특정한 식물의 잎만 먹기도 합니다. 산초나무에는 호랑나비가, 족도리풀에는 애호랑나비 애벌레가 찾아오지요.



B5 숲지기의 실험실

이 작은 실험실은 SM엔터테인먼트 임직원과 가족들이 직접 키운 식물을 심고 관찰하며 도시의 생물다양성 증진에 보탬이 되고자 실천하는 곳입니다.

광야숲 3기, 2025년 봄 조성

스트로브잣나무 숲 아래

이곳에서 우리는 자연의 시중을 들며 땅을 회복합니다. 매년 어린나무를 옮겨심고 낙엽 이불을 덮어주며, 힘찬 뿌리와 작은 생물은 다져진 토양을 부드럽게 합니다. 눈을 감고 흙을 가르며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이는 작은 생명들을 떠올려주세요.



C1 사람과 자연 사이

어린나무와 땀방울이 마음 놓고 쉬는 숲과, 사람들이 걷고 머무는 공간 사이에 돌을 놓고 풀과 키 작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사람과 자연 모두를 존중하며, 그 사이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경계입니다.



C2 뱀공이의 잠자리

가을이 끝나갈 무렵부터 이른 봄까지, 뱀공이는 자신이 살던 연못 근처의 땅속으로 들어가 긴 잠에 듭니다. 많은 뱀공이가 겨울잠을 자기 위해 광야숲을 찾습니다. 땅속 굴에서 조용히 숨 쉬고 있을 뱀공이를 상상해 보세요.



C3 낙엽 이불

가을이면 숲지기는 광야숲 1기와 2기 구역에 쌓인 낙엽의 일부를 이곳으로 옮겨 옵니다. 낙엽은 이 흙에 사는 생물들에게 먹음직스러운 식사가 되어 주며 비바람에 흩날릴 것을 막아 줍니다.



C4 나무의 뿌리

매년 봄, 숲지기는 어린나무들을 이곳으로 옮겨 심어, 힘찬 뿌리가 단단하게 다져진 땅을 부드럽게 하도록 돕습니다. 나무 아래 자라는 어린나무들을 찾아보세요.



C5 쉼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 부스럭거리는 낙엽 소리. 사람들의 발걸음과 웃음소리. 갓 움튼 어린 잎으로 흐르는 수액과 땅속에서 쉬는 뱀공이의 숨결. 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쉬며 마음속에 이 풍경을 그려 보세요.